

아일랜드, 동물보건 컴퓨터시스템 시행

컴퓨터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의 동물보건시스템 유지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.

아일랜드의 농업식량부 장관(The Minister for Agriculture & Food)인 Mr Joe Walsh TD는 동물보건컴퓨터시스템(AHCS)이 수의사무소에 첫 선을 보였다고 말했다. Laois와 Offaly 지역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Clonakilty와 Tipperary 지역에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이며, 몇 달 내로 다른 모든 지역에 보급될 것이다.

Walsh 장관의 말에 따르면,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결핵과 부루셀라 병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의 분야와 동물보건 분야의 일을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. 실제로 AHCS는 이제까지의 독립 시스템 체계를 대신하고 있으며, 현대적이고 유연성 있으며 네트워크가 완비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수의사무소의 수많은 동물후생 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.

이 시스템은 자료의 수집·처리 및 개인 수의사들과의 협업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고, 이에 힘입어 수의연구소 산하 혈청검사소는 모든 동물의 검사 결과를 빠르고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. 수의연구소는 병원균 실험 결과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보고·분석·조사 능력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대응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.

Walsh 장관은 AHCS는 동물보건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, 아일랜드의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 AHCS를 토대로 하여 더욱 정교한 체계가 확립된다면 결핵이나 부르셀라 병 외에도 소 광우병(BSE)이나 존슨 병 같은 소 관련 질병을 비롯하여 돼지가 걸리는 아스코젠 병(Aujeszký's disease), 양이 걸리는 스크래피병(Scrapie), 조류독감, 구제역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.

Walsh 장관은 AHCS의 도입이 다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의 추적가능성과 관계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아일랜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 도입 초기부터 AHCS는 수의 연구소 내의 다른 프로그램들(가축이동경로 관리프로그램, 송아지 표식부착 및 관리프로그램)과 자료를 공유해서 사용해서 가축의 생애 주기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.

이 새로운 동물보건시스템은 수의연구소의 전반적인 IT전략의 주 투자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요 구성 부문이기도 하다. 이러한 재개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산재한 체계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. 새로운 시스템은 최신 인터넷 기술을 도입했고, 개인수의사들로 하여금 수의연구소 시스템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. 다양한 전자정부(e-Government) 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진행되면서, 미래에는 농민들도 자신들이 사육하는 가축과 동물 관련 정보를 얻고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Walsh 장관은 모든 의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경우 개별적인 검사나 진료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전반적인 동물보건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.

자료 :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
(유찬희 rule-des@orgio.net 019-251-8793 지역아카데미)